

완도해양치유센터 연일 '문전성시'

휴가철 '힐링 핫 플레이스' 부상
하루 200명 찾아 평일 예약 매진
치맥 페스티벌 등 즐길거리 제공



완도해양치유센터가 휴가철을 맞아 힐링 콘서트와 치맥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 테라피 시설. <완도군 제공>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완도해양치유센터에 지난 11일 기준 누적인원 3만6500여 명이 다녀갔다. 여름 휴가철이 접어들어 7월 말부터는 매일 200명이 넘는 치유객이 방문하며 평일 예약이 매진되기도 했다. 해양치유 효능에 대한 입소문과 함께 폭염 속 야외 피서지보다 센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테라피가 다양해 많이 찾는 것으로 굳은 보고 있다. 금빛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신지 명사십리에 자리한 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조류, 마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할 탈라소폴, 명사폴, 해조류 거품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췄다. 해양치유센터의 대형 해수 풀인 탈라소폴은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탈라소 풀에서 수중 테라피를 받으며 감상하는 명사십리의 바다 전망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 포인트다. 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6%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며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지난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의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을 위해 힐링 콘서트와 치맥 페스티벌 등을 열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완도타워와 장보고기념관은 무료로 방문할 수 있고, 모노레일과 짚라인, 정해포구 촬영장은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연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지도 젓갈타운서 '빨땅 토요일 먹거리 장터' 열린다

24일 첫 개장... 특산물 판매
난타·장고·색소폰 등 공연도



신안군 지도 젓갈타운 전경.

"'빨땅' 토요일 먹거리 장터에 놀러 오세요." 신안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도읍과 중도면 인자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도 젓갈타운 일원에서 빨땅 토요일 먹거리 장터를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의 섬에 미술관, 박물관, 정원을 조성하는 1섬1뮤지엄, 1섬1정원화 사업과 함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계절 꽃과 나무가 흐드러진 북부권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빨땅 토요일 먹거리 장터 증고장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로 해 눈길을 끈다. 휴식기를 감안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젓갈타운 상가 내에서 오는 24일 첫 번째 장터를 열 예정이다.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먹거리 장터, 난타, 장고, 색소폰 공연, 장지리방, 경품추첨 등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선보인다. 빨땅 토요일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 '신안 젓갈타운'은 젓갈의 유통과 홍보,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

로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심을 얻기 제격이다. 박상규 지도읍장은 "지도읍은 때 묻지 않은 훈훈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곳으로, 드넓은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게르마늄 쌀은 맛과 영양이 탁월하고 송도 위판장에서 출하되는 새우젓과 수산물은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축제와 먹거리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도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삼산막걸리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전국 395개 제품 출품 경연



해남 삼산 막걸리.

해남 삼산막걸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우리술 품평회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됐다. 우수한 전통주 선정을 위해 주류 전문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3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고도탁주 부문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삼산주조장의 '해남삼산생막걸리 9도'는 해남산 찹쌀, 햅쌀과 누룩만으로 장기 발효한 무감미료 제품으로, 두루산의 깨끗한 물로 빚은 맑고 경쾌한 맛이 특징이다. 막걸리는 도수가 높아질수록 알코올의 독특한 맛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목 넘김의 쌀 막걸리 본연의 깊은 맛이 더해진다.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시상은 11월에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행사와 연계해 이뤄진다.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술 품질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온열질환 예방"...신안군, 무인 생수함 설치

유동 인구 많은 압해읍 시가지에



신안군이 설치한 무인 생수함.

신안군이 폭염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인 생수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무인 생수함은 얼음과 생수를 가득 채워 유동 인구가 많은 압해읍 시가지에 설치했다. 이곳을 지나는 군민과 관광객은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무인 생수함 설치 외에도 지역 자율방재단과 공무원들이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 주며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민들이 뜨거운 낮에 온열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전하고 질환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신안군은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일삼을 위해서 무인 생수함을 다른 읍·면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낮 시간 야외 작업 자제, 야외 작업 시 폭 2명 이상 실시, 현기증, 메스꺼움 증상 발생 시 즉시 야외 활동 중지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하며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물서 추석 선물 30% 싸게 장만하세요

추석맞이 '할인이 풍년' 기획전

세트는 추가 5% 할인가로 제공된다. 1회 주문당 10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할인이 더해져 최대 3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엔 어떤 추억을 쌓을까요?' 댓글 이벤트에서 30명을 선정해 친환경 유기농 쌀귀리 1kg도 선사한다. 우송희 영암군수는 "청정 자연에서 정성들여 재배한 최고의 농산물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장만하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영암물'에서 '추석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19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영암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전하는 대대적 할인 이벤트다. 영암군은 청정 자연에서 길러낸 매력찬우, 친환경 달마지쌀 등 대표 농특산물 선물세트 등 34종을 선보인다. 모든 농특산물은 기본 20% 할인되고 추석 선물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